거대 공룡된 온라인 쇼핑·편의점…대형마트 10배 성장

대한상의, 소매시장 변화 10년 발표…온라인 쇼핑이 성장 주도
지난해 기준 509조 5000억원 10년새 33%↑…연평균 3.2%↑

최근 10년간 온라인 쇼핑과 편의점 업계의 성장세가 대형마트의 10배 수준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가 발표한 '통계로 본 소매시장 변화 10년'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소매시장 규모(경상금액)는 509조5000억원으로 10년 전인 지난 2014년(382조3000억원) 대비 33.3% 증가했다. 연평균 3.2% 성장한 셈이다. 이번 조사는 대한상의가 통계청 소매판매액 데이터를 기반으로 지난 2014년부터 2023년까지 국내 소매시장 변화를 분석한 결과다.

연도별로는 지난 2021년 코로나19의 기저효과로 일시적으로 7.5%의 높은 성장률을 보였던 것을 제외하면 매년 2~4% 내외로 비슷한 성장률을 기록했다.

업태별로는 오프라인 시장이 온라인 시장에 비해 비교적 성장세가 더뎠던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인터넷쇼핑과 홈쇼핑 등 무점포 소매의 연평균 성장률이 대형마트의 10배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소매 업태별 판매액 연평균성장률을 보면 무점포소매가 12.6%로 가장 많이 성장했고, 편의점(10.4%), 면세점(5.8%), 백화점(3.8%) 순이었다.

반면, 슈퍼마켓 및 잡화점(1.5%), 대형마트(1.2%)는 국내 소매시장 평균 성장률(3.2%)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고, 전문소매점(-0.4%)은 10년동안 오히려 뒷걸음질 쳤다.

이는 지난 2010년대 이후 온라인 쇼핑몰이 급증하는 등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속도가 가팔라졌고, 코로나 19확산 여파로 무점포소매와 편의점 성장이 두드러진 반면 대형마트의 경우 1~2인 가구의 증가 및 영업규제 장기화 등의 영향으로 부진했던 것으로 분석된다.

업태별 시장점유율을 보면 무점포소매가 11.8%에서 25.7%로 10년새 117.8% 폭등했고, 편의점(3.3%→6.1%), 면세점(2.2%→2.7%) 등이 성장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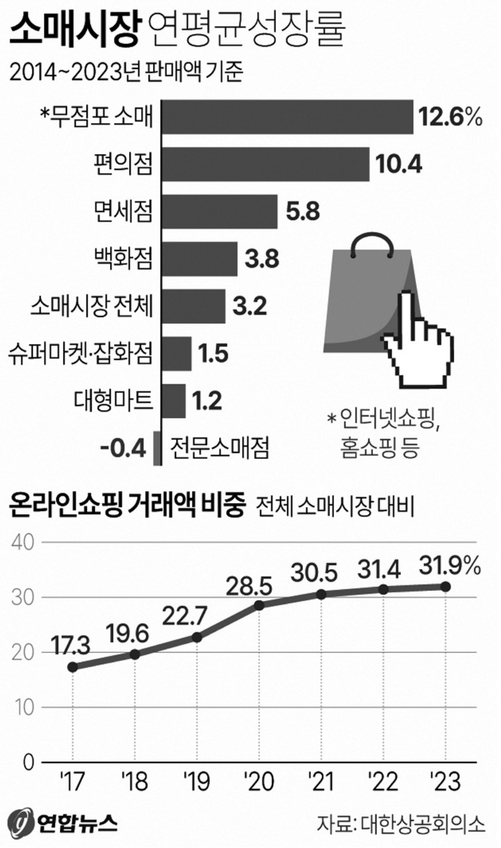
반면 같은 기간 전문소매점의 시장점유율은 50.8%에서 36.9%로 13.9%포인트 하락했고, 대형마트(8.7%→7.2%), 슈퍼마켓 및 잡화점(15.6%→13.4%) 등은 쇠퇴했다.

이는 온라인쇼핑의 확대에 따른 결과로, 지난해 소매 판매액 전체에서 온라인 쇼핑 거래액이 차지한 비중은 31.9%로 지난 2017년(17.3%)보다 84.8% 증가했다.

품목별로 가구의 온라인 쇼핑 점유율이 34.2%로 가장 높았고, 컴퓨터·가전·전자·통신기기(33.0%), 서적·문구(31.5%), 신발·가방(30.6%), 화장품(25.3%), 의복(23.8%)가 뒤를 이었다.

장근무 대한상의 유통물류진흥원장은 "지난 10년간 온라인 시장의 급격한 성장과 오프라인 시장의 위축, 인구구조 변화 등으로 유통시장은 과거와 전혀 다른 시장으로 변화하고 있다"며 "정부가 올해 하반기 발표하기로 한 유통산업 발전방안에 향후 10년간의 지속 성장을 담보할 수 있는 지원책이 수립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추석 선물로 전통 유기 그릇 어때요? 11일 롯데백화점 광주점 직원들이 유기 밥그릇, 국그릇 제품들을 선보이고 있다. 지난달 광주점 8층 리빙매장에 유기 그릇 전문 브랜드인 '수타미'가 신규 입점했다. 해당 매장에서는 유기 그릇, 수저 등 다양한 제품을 판매한다. 특히 수타미에서는 국가무형문화재 77호 이형근 유기장인의 옥바리, 옥식기와 더불어 자개 미니 가구 등 전통의 멋이 담긴 제품들도 만나볼 수 있다. 〈롯데백화점 광주점 제공〉

"혼추족·차례족 잡아라"…대형마트, 간편 차례식·한우 할인

이마트 제수용 상품 가격 인하
홈플러스, 한우·찜갈비 40%
계란·쌀·두부 등 가격혁명 행사

지역 대형마트들이 본격적인 추석 연휴를 앞두고, 추석 먹거리 수요를 겨냥해 다양한 할인 및 증정 행사를 전개한다.

이마트 광주점은 11일 "최근 차례상 간소화 트렌드에 발맞춰, 오는 18일까지 '간편 차례상 행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광주점은 행사기간 동안 '피코크 제수용' 행사상품 가격을 낮추고, 구매 시 상품권을 증정한다.

이번 행사에서는 피코크 제수용 행사상품 40여종 가운데, 2만 5000원 이상 구매한 고객들을 대상으로 5000원 상품권을 증정한다.

행사상품 품목은 흰 송편, 모싯잎 송편 등 송편류 5종과 식혜, 수정과 등 음료 4종, 모듬전, 소고기육전 등 전류 6종을 비롯해 참기름, 올리브유, 두부 등 주방 필수품까지 40여종이 포함된다.

광주점은 최근 고물가로 인해 '가성비' 상품 수요가 높아짐에 따라 간편 차례상 대표 품목을 포함한 피코크 상품 300여개의 가격도 인하했다.

대표적으로 '피코크 떡갈비(450g)'은 기존가보다 16% 저렴해졌고, '피코크 흰송편(600g)'등 송편 5종의 가격 역시 6% 내렸다.

광주점은 또 추석 간편식 트렌드에 발맞춰 델리 코너에서도 추석맞이 메뉴를 출시했다.

오색전, 동태전, 완자전, 육전 등 6종류의 전을 한 팩에 담은 '알찬 모듬전 세트'를 2만 5980원에, 국산 고사리, 도라지, 무나물, 시금치, 숙주나물, 콩나물로 구성된 '명절 6종 나물(360g)'은 9980원에 선보인다.

홈플러스도 오는 12일부터 '고기 유니버스', '인공지능(AI)가격혁명' 등의 행사를 열고, 최대 40% 할인 혜택을 제공할 계획이다.

우선 오는 18일까지 마이홈플러스 멤버십 회원들을 대상으로 '고기 유니버스' 행사를 전개한다.

행사 기간동안 농협안심한우 전품목을 최대 40%, 미국산 초이스 냉장 찜갈비도 40% 할인 판매한다.

명절 나들이를 계획하는 고객들이 선호하는 '한돈 브랜드 삼겹살·목심(100g)'은 7대 카드 결제 시 30%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또 오는 13일까지는 '농협안심한우 1등급 1+등급 등심(100g)'을 마트에서 50% 할인가에 만나볼 수 있다.

또 오는 25일까지 진행되는 '2배 더 강력해진 AI 가격혁명' 행사에서는 명절 연휴기간 수요가 급증하는 상품들을 AI가 엄선해 업계 최저가로 선보인다.

이에 따라 'CJ무항생제 1등급 깨끗한 계란'은 7890원에, 올해 첫 수확한 고흥 햅쌀(10kg)은 2만 9900원에 판매한다.

추석 물가안정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각종 명절 먹거리 상품 할인 혜택도 마련했다. 'CJ·풀무원 두부 9종'은 2090원, '1+1' 혜택을 제공하고, '당면 11종'은 최대 50% 할인, 전류 8종은 마이홈플러스 멤버십 회원을 대상으로 10% 할인가에 제공한다.

이마트 최진일 마케팅 담당은 "혼자 추석을 보내는 '혼추족', 직접 차례상을 준비하는 '차례족' 모두에게 간편 차례상 품목이 인기를 끌고 있다"며 "고물가 속 고객들이 저렴하게 명절음식을 준비할 수 있도록 행사를 계획했다"고 말했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광주신세계, MZ 인기 스포츠 브랜드 입점

호남 최초 '윌슨' '살로몬' 오픈

광주신세계가 다양한 스포츠 브랜드를 호남 최초로 신규 입점시키며 고객들의 발길을 붙잡고 있다. 최근 스포츠 용품 브랜드가 축적된 노하우를 바탕으로 의류와 신발 등 종합 스포츠웨어로 확장한 데 따라 젊은 세대 수요가 높아진 결과로 분석된다.

광주신세계는 지난 10일 신관 지하 1층에 아메리칸 스포츠 브랜드 '윌슨'을 호남 최초로 선보였다. 윌슨은 전세계 주요 리그에서 사용되는 농구공과 테니스공을 만든 브랜드로, 다양한 스포츠 종목 의류로 분야를 확장해 의류에서도 인기를 끌고 있다.

대표 제품으로는 여성 임팩트 풀집 자켓이 있다. 해당 제품은 스포츠 웨어 특유의 가벼우면서도 신축성이 좋다는 장점을 바탕으로 일상 뿐만 아니라 테니스 경기 등 다양한 활동에서도 착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윌슨은 호남 최초 오픈을 기념해, 광주신세계 윌슨 매장에서 테니스 라켓을 구매한 고객을 대상으로 라켓 줄을 조절하는 스트링 서비스를 제공한다.

광주신세계는 스포츠 용품 브랜드 '살로몬' 역시 오는 13일 호남 최초로 선보인다.

살로몬은 스키용품을 제작하는 브랜드로, 현재는 분야를 확장해 테크니컬 의류와 프리미엄 풋웨어 등도 생산하고 있다.

특히 최근 일상 속에서 아웃도어 스타일을 착용하는 '고프코어룩'이 MZ세대에게 큰 인기를 끌어 살로몬 제품 수요가 높아졌다. 이에 따라 살로몬 '트레킹화 XT-6'는 온·오프라인에서 품절 사태를 빚기도 했다.

이정일 광주신세계 신관팀장은 "윌슨과 살로몬 등 인기 스포츠 브랜드들의 호남 첫 매장을 광주신세계에서 만나보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